

# 거제서 생후 5일 된 ‘미신고 영아’ 살해 혐의 부부 구속

거제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부부가 최근 구속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 같은 범죄가 잇따르자 국회는 의료기관이 출생신고를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창원지법 형사지원은 2일 오후 출생 미신고 영아 살해 혐의(살인)로 사실은 관계인 친부 20대 A씨와 친모 30대 B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거제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인 C군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5일 전 거제의 한 산부인과에서 C군을 출산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피원한 뒤 주거지에 돌아와 아이와 함께 자고 일어나니 숨져 있었다”며 “아이를 화장할 돈이 없어 아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직접 C군 목을 졸라 숨지게 했고, B씨는 이를 지켜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출

생 9일 목졸라 살해 후 하천 유기 다른 미신고 자녀 2명은 입양” 진술

잇단 범죄에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 지자체 통보 시민단체 “권리 보장 의미 커” 환영

생 사실을 알기 부모가 알게 될 경우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A씨는 범행 이후 C군을 아산에 매장하려 했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하천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고성군이 미신고 아동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던 중 밝혀지게 됐다. 고성군 복지 담당 공무원은 미신고 아동인 C군에 대해 조사하고자 이들 부부를 찾았고, 아이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아이 소재를 묻는 공무원 질문에 처음에는 출생신고 전 입양을 보냈다고 답했다. 하지만 추궁이 이어지자, 생매장했다는 진술을 한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30분경 경찰이 유기된 영아의 시신을 찾기 위해 아산을 수색하고 있다./경남경찰청

것으로 전해졌다. 고성군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달 29일 부부를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다. B씨는 주민등록상 주소는 고성군이지만 거제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B씨에게는 C군 이외에도 한 남원과 만나기 전 자녀 3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 중 한 명은 친정에서

양육돼 안전이 확인됐다. 다른 아이는 각각 국내와 해외에 입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신고가 누락된 미신고 영아에 대한 사건이 잇따르자, 국회는 지난달 30일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미신고 영유아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

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법안 통과에 대해 아동인권보호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굿네이버스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의무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신원,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또한 논평을 통해 “부모의 의지나 상황과 관계없이 아동이 태어남과 동시에 출생 등록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출생등록 자체가 권리 보장의 시작임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지역 미신고 영유아는 122명으로, 경기(641명), 서울(470명), 인천(157명) 다음으로 많다. 박준혁 기자

< 여청과 통보 >

## 보건의료노조, 노동쟁의 신청… 총파업 예고

### 간호·간병 통합 확대 등 요구안 제시

속보= 의료 인력 확충과 감염병 전담 병원 회복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노조) 산하 지역본부가 동시다발적으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6월 8일 5면)

전국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는 10개 의료기관(사업장)을 대상으로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울산경남지역본부는 △경상국립대 병원(창원, 진주) △마산의료원 △거창적십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경남혈액원 △대우병원 △진주한일병원 △울산병원 △울산혈액원 등을 대상으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참여한 조합원은 모두 2500명이다.

전국적으로는 147개 의료기관에 조합원 6만1311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2일까지 인 노동쟁의 조정 기간 내에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3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보장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및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 인력 확충과 불법 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 19 대응에 따른 공공병원 회복 지원 확대 △9.2 노정 합의 이행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 7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특히 전국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는 7대 요구안 중 '의대 정원 확대'와 '추가 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윤석 전국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 조직국장은 "경남은 인구 대비 의사 수가 현저히 부족하다. 이 문제는 의대 정원과 공공 의대가 부족한 탓"이라며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추가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전공의 배치가 수도권에 쏠려있는 상황"이라며 "위 문제들이 장기적인 대책이라면, 단기적으로는 지역 병원에 전공의 배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현 기자

< 정보과 통보 >

## 康南日報

2023년 7월 3일 월요일 004면 사회

### 박종우 거제시장 오는 6일 첫 공판

최근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한 첫 재판 일정이 잡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는 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거제축협조합장 신분으로 거제시장 당선을 위해 측근 A씨를 통해 입당 원서 모집과 SNS 홍보 등에 대한 대가로 1300만원을 서일준 국회의원실 당시 직원 B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배창일기자

# 창원 옹동1지구 '시행자 자격 박탈처분' 유지

부산지법, 창원시 가처분신청 기각  
법원 "시, 경자청 명령 이행 안했고  
회복 힘든 손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시 "결정문 분석 후 향후 대응 방침"

창원시가 법원에 낸 진해 옹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 박탈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시는 법원 결정문을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이하 경자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창원시는 지난 3월 30일자 경자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으로 사업  
시행자 지위를 잃게 되면,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등의 이유로 지  
난 5월 30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창원시가 경자청의 시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회복하기 어  
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  
단했다. 재판부는 "창원시와 경남개발  
공사의 견해 대립 등으로 당초 예상한  
시행 기간을 초과해 상당 기간 표류하  
고 있는 상태에 있음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경자청이 2018년부터  
사업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하고, 창원  
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6차례에 걸  
쳐 시행 명령을 내렸음에도, 그 후 사  
업에 관해 유의미한 진척이 있었다거

나 창원시에서 그러한 시행 명령을 이  
행했다고 볼 만한 분명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업시행자 지  
정 취소) 처분으로 인한 창원시의 손  
해, 즉 확정투자비나 매도 명령에 따른  
손해 등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집행  
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창원시  
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  
각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의창소  
멸어업인조합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  
합하다며 각하했다.

창원시는 법원의 결정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 등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  
할 계획이다.

경자청은 앞서 △개발사업시행자  
(경남개발공사-창원시)의 귀책으로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 △개발사업  
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를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취  
소 처분을 내렸다. 2018년 민간사업자  
의 토지사용 기간 연장 요청을 두고 창  
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이견이, 민간  
사업자의 사업 범위, 민간사업자의 협  
약 해지 등에 대한 이견으로까지 이어  
지면서 갈등이 커져 갔고, 현재까지도  
해소되지 않는 등 두 기관이 공동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을 더 이끌어갈 수 없  
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남개발공사는 경자청의 지  
정취소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인 반  
면 창원시는 공유재산 손실 피해가 고  
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사업 장  
기화 책임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에도 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처분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경남도민일보

2023년 7월 3일 월요일 015면 사람들



### 김해교육지원청 마약 근절 캠페인 동참

김해교육지원청이 지난달 30일 마약류 사용·유통 근절을 위해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날 안태환 교육장은 '출구 없는 미로, 노 엑시트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마약 없는 세상을 함께 응원했다.

/이수경 기자



## 거제서 발생한 미신고 영유아 사건과 아영이의 경우

최근 미신고 영아 2명을 살해한 후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온 수원 친모사건의 충격이 채 사그라들기도 전에 또다시 도내에서 미신고 영아를 살해한 사건이 드러나 지역사회가 혼미스럽다. 경남경찰이 출생 미신고 영아 살해 혐의(살인)로 20대 A씨와 사실혼 관계의 아내 30대 B씨에 대해 2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A씨는 작년 9월 거제의 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영아를 살해하고, B씨는 이를 지켜본 혐의이다. 이들은 영아의 시신을 야산에 매장하려 했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하천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드러난 거제 사건은 최근 우리가 접했던 미등록 영유아 살인사건과 흡사해 보여 경각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미신고 영유아 살해 등 문제가 계속 생기자 최근 감사원이 조사를 했는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확인된 미신고 영유아가 모두 2236명이라는 것이다. 경남에서만 122명이 파악됐고 경기(641명), 서울(470명), 인천(157명) 다음으로 많았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의

원이 지난 2021년 1월 대표발의한 '출생통보제'를 의무화하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분만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 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됨에 따라 살해·학대위험에 처한 '유령 아동'이 없어지게 됐다.

미신고 영유아 살해 등의 문제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2019년 10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닷새 만에 머리를 크게 다쳐 인공호흡기로 살아온 정아영 양이 끝내 지난달 29일 세상을 떠났다. 출생 당시 아영 양은 간호사 A씨에 의해 병원 바닥에 떨어뜨려져 뇌사상태에 빠졌다. 간호사의 방심이 어린 목숨에 치명적 결과를 안겨 준 사건으로 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회생을 간절히 기도해온 가족의 소망을 뒤로한 채 아영이는 또래 아이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후 하늘나라로 갔다. 아영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경우든, 부모에 의해 살해당하는 미신고 영유아의 경우든 이런 일을 모두가 막아내야만 생명의 경외감이 넘쳐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최고 33도... 후텁지근한 하루

3일 부산 울산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3도 내  
외로 오르고 습도가 높아 덥겠다.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보통

2023년 7월 3일 (음 5월 16일) 기상안내 131



나들이	자외선	피부	냉방	빨래
60	70	50	70	60

맑음	맑은 후 구름많음	한때 비
구름조금	구름 많은 후 맑음	천둥번개
구름많음	흐리고 비	흐리고 비눈
흐림	소나기	흐리고 눈

	해돋이/해질		달돋이/달짐
	05:13 19:42		19:56 04:19

물때

	밀물	썰물
부산	07:57 20:42	01:55 13:52
인천	04:28 16:43	11:02 22:57
포항	14:08 -	22:37 -
통영	08:20 21:18	02:33 14:21

바다날씨

앞바다	풍향	풍속 %	파고m
남해서부	동-남동	6-9	0.5~1
남해동부	동-남동	3-7	0.5~1
동해남부	남동-남	4-8	0.5~1
동해중부	동-남동	4-8	0.5~1
서해중부	북동-동	2-5	0.5~0.5
서해남부	북동-동	6-9	0.5~1

주간날씨

	4 (火)	5 (水)	6 (木)
부산	23-27	23-29	23-29
울산	22-27	23-31	22-32
진주	22-28	23-33	21-31
김해	23-28	24-32	23-32
창원	23-27	23-31	22-30
통영	22-26	23-28	22-27
대구	23-30	24-33	23-34
세종	24-30	24-31	23-32
서울	24-28	23-30	22-31
제주	24-31	25-29	24-30